

# 포장산업 강국을 위한 인재개발의 중요성

## Importance of the training packaging talents

한 산업의 발전은 그 산업에 어떤 인재가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포장산업의 발전에 있어 포장인재의 개발이 얼마나 중요하며 21세기 태평양시대의 강국을 꿈꾸고 준비하고 있는 중국과 중국의 포장산업은 그들의 포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포장인재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어떻게 포장인재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지 논하고자 한다.

일본 기업가인 土光敏夫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가라 앉지 않는 배는 존재하지 않으며 무너뜨리지 못할 기업도 없으며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노력에 달려 있다.

“천하를 정복하려는 사람은 먼저 사람을 정복하여야 한다.”

이윤이 가장 높은 상품으로서 인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은 최종적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하나의 기업으로 놓고 볼 때 경쟁은 실질상 지력, 인재의 경쟁인 것이다.

사람은 기업의 일체 활동의 핵심이다. 기업 인재 전략의 근본적인 착중점은 바로 어떻게 하면 기업의 인재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곧 인재개발이다. 중국의 포장기업들은 치열한 경쟁과 복잡한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우선 먼저 해결하여야 될 것으로 기업에서 반드시 정확하고 시장수요에 부합되는 자체의 경영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인재전략은 기업의 모든 경영전략 중 가장 근본적인 전략으로서 그 중에 가장 핵심 되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재봉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  
공과대학 생물화학공학과 교수  
중국 길림대학교 포장대학  
포장공학과 객원교수

### 1. 인재개발이란 무엇인가.

인재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재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인재는 독특한 재간, 기능 혹은 특점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은 3개 방향의 함의가 포함된다.

1) 인재는 모종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360개의 업종에 업종마다 인재가 있다. 일정한 수준의 과학 기술 인원, 외국어 사용 가능한 사람은 당연히 중요한 인재이고 일정한 경제, 경영인원과 관리수준을 갖춘 인원도 동일하게 없어서는 안될 인재이다. 그 어느 업종이나 학과든지 어느 정도의 특점이 있으면 모두 인재라고 할 수 있다.

2) 인재는 이미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잠재력을 갖춘 사람을 포함한다. 잠재력은 갖고 있지만 기회가 없어서 공헌을 못한 사람들은 인재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인재는 반드시 일정한 지식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러하여야만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게 된다.

가히 알 수 있듯이 인재는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 성장의 발전방향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인재개발이라 하는 것은 인재에 대한 발견, 배양, 제고, 사용과 관리를 말하는 것이다.

인재개발을 규정하여 볼 때 중요하게 두가지 방향이 포함된다.

1) 교육훈련은 인재를 만든다

2) 합리적 인사관리는 인재를 만든다.

교육훈련은 기초이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는 바로 인재개발의 목적으로서 교육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맹목적인 교육이 되고 사용만 하고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관료주의적인 사용이 된다. 이 두 가지 편향은 모두 착오적인 것으로서 모두 인재개발에 불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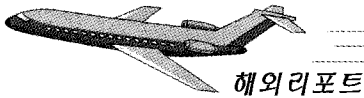
## 2. 인재개발의 중요성과 긴박성

기업 전체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각종 인재들의 집합을 인적자원이라고 한다.

인적자원은 세계의 3대 자원(즉 인적자원, 물적자원과 재력적자원)중에서 가장 귀중한 자원부이다. 세상의 모든 자원 가운데서 사람은 제일 귀중한 자원이다.

물적자원과 재력적자원은 사람에 의해서만 이용될 수 있지만 인적자원은 기타의 어떠한 자원에도 이용되지 못하는 것으로서 단지 사람에 의하여만 자체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협의상 의미로 볼 때 인적자원은 인체내부의 능력을 하나의 자원으로 보는 것인데 이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였을 경우엔 단지 잠재적인 노동 생산력으로 간주되지만 이것이 일단 개발되면 그것은 하나의 실제적인 생산력으로 변하는 것이다.

기업의 발전은 제품에 의거하고, 제품은 부단히 새로이 창조되어야 하며, 새로운 창조는 과학기술에 의거하며 과학기술은 인재를 필요하게 된다.



세계 경제의 발전은 이미 지식경제의 시대에 진입하였다. 노동 생산효율의 제고, 사회 생산력의 발전은 기업의 능력과 생산수단의 개선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미국 경제 발전의 역사는 인재의 귀중함을 생생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2차 대전의 승리로 미국에서 진행된 하나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독일의 원자탄 연구 전문가들과 독일의 유대인들을 미국으로 이주시키는 것이었다. 오늘 미국의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있는 골간 역량은 그런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미국 사람들(미국적 한국인을 포함)이다.

전후 일본 경제가 급속히 성장한 매우 중요한 원인은 전쟁 전에 일본의 교육과 과학기술이 이미 일정한 기초를 마련하였기에 일본 기업들은 대량의 인재를 모집할 수 있었으며 이런 인재들은 일본경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리하여 합리적으로 기업의 인재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은 기업의 실제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실현하며 기업의 발전에 대하여 극히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포장기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포장에 대한 교육과 과학기술이 포장공업의 발전에서 일으키는 역할을 경시하였기에 포장기업의 인재자원은 실제적인 생산력으로 신속하고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었고 따라서 포장기업의 잠재된 인력자원은 매우 적었다.

### 3. 포장기업의 인재개발 능력의 확대

인적자원은 이미 국제경쟁의 전략적인 목표가 되었다.

21세기는 곧 인적자원의 경쟁이 날로 격렬해지는 시대가 될 것이며 국가의 빈부 차이는 과학기술의 발전수준과 과학기술성과의 운용상의 차이로 나타나며 실질상 인적자원의 개발효과와 인적 능동성 발휘의 차이인 것이다.

앞에서 말한 포장기업인재개발의 긴박성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포장기업의 발전이 느린 이유는 주요하게 과학기술에 있으며 인적자원에 대한 개발 정도에 있다. 이리하여 포장기업들이 두 개의 근본적인 변화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인적자원의 개발의 폭을 넓히고 과학기술의 진보와 기업 인적자원의 소질을 제고해야 하는 것이다.

가. 포장인재개발을 포장기업 발전의 기본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람의 인식이란 사람들의 사상소질의 중요한 부분이다.

포장기업의 경제적 효익성을 제고하려면 포장기업들의 활력과 발전의 동력을 증강하여야 하며 반드시 먼저 사람들의 인식을 개변시키고 인재개발을 증강하고 인재자원에 대한 자각성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대화 건설의 가속화는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고 포장공업에 대하여도 하나의 전례없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여 주었다. 포장기업에서 이 기회를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지는 그 관건이 근본상에서 인재자원에 대한 개발과 효과적인 이용이며 비교적 우세한 자원에 대한 충분한 이용의 발전전략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1) 포장산업 지도자들의 인재개발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우선 기업의 지도자들이 인재를 사랑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는 너무 가난하여 인재를 남겨 둘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家貧出孝子”라듯이 우리에게 인재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인재를 사랑하는 열정이 부족한 것이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없어도 지구는 여전히 돈다”는 철학을 믿고 있고 한 인재가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지 믿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지식, 인재가 가장 존중받는 사회라고 가히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의 지도자들은 인재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인재에 대한 식별은 먼저 식별표준을 정확히 정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정확하고 효과적인 식별방법에 주의하여야 한다.

인재의 식별표준은 반드시 덕재(德才)가 겸비되어야 한다.

보통의 경우 인재는 4가지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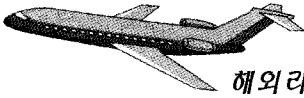
- (1) 회사의 가치관을 승인하며 이윤을 창조하는 사람
- (2) 회사의 가치관을 승인하지만 이윤을 창조할 수 없는 사람
- (3) 회사의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윤은 창조할 수 있는 사람
- (4) 회사의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윤도 창조할 수 없는 사람

(1)과 (4) 부류의 사람들은 처리하기가 쉽다. (1)은 회사에서 중용할 것이고 (4)부류는 채용하지 않을 것이다. (2)부류의 사람에 대하여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회사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이윤을 창조할 수 없는 사람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한 의견은 기업에서 인재를 너무 정황에 따라 채용할 수 있는데 이유는 기업은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 너무 투기성은 안 되며 회사에서 투입이 있어야 인재가 배양될 수 있으며 기업 자체에서 배양해 낸 인재가 더욱 믿을 만하다는 것이다. (3)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의견이 더욱 일치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채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회사를 위하여 이윤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고 여기는데 그것은 작은 것을 위하여 큰 것을 잃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한 방면으로 인재의 식별표준은 반드시 침대성(針對性)이 있어야 한다.

인재는 크게 세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한다.

첫 종류는 독립적으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종류는 많은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셋째 종류는 전략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실질상 기업관리의 측면으로부터 인재에 대하여 분류를 진행한 것이다. 기업이 비교적 작을 때에는 첫 종류의 인재를 보다 많이 수요하고, 일정한 정도로 발전하였을 때에는 두 번째 종류의 보다 많은 선호하게 되며, 일정한 규모로 비교적 크게 발전하였을 경우에는 세 번째 종류의 인재를 수요하게 된다.

한 사람을 식별하는 것은 제품을 식별하고 검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욱 어려운 것이다. 인재표준에 대한 판단은 응당 일종의 동적인 표준을 견지하여야 되지 정적 표준으로 사람을 가늠하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가상(假象)일 수 있으며 사람은 움직일 때에야 진실이 들어 나고 사람의 능력도 행동에서 객관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2) 전략형 인재를 배양하여 고소질의 포장기업가를 배양해야 한다.

속담에 이르기를 “기차가 빨리 달리는 것은 모두 차머리가 이끌기 때문이다”고 하듯이 기업의 흥망성쇠는 기업의 지도 역량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특히 가장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의 수준, 소질, 능력, 추진력의 정도에 달려 있다. 기업의 인적자원의 소질 제고와 기업 지도자들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기업인재의 선발, 사용, 배양 등등은 모두 기업의 지도자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포장기업의 인적자원의 소질을 제고하려면 우선 먼저 지도자들이 인재개발에 대한 인식부터 제고하여야 한다.

전략형인재(戰略型人才)에 대한 배양을 강조하여 우수한 포장기업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는 포장기업인재에 대한 개발과 인적자원 이용의 능력을 확대하는 관건적인 조치로서 포장기업인재에 대한 개발과 인적자원의 이용 정도와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우리나라 포장기업에 현재 가장 결핍된 것은 전략형인재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들은 정말로 매우 우수한 포장기업가들로서 기업을 점차 더 높은 단계로 이끄는 전략형인재이다.

전략형인재는 높이 서서 멀리 내다 볼 수 있어야 하며 전체적인 국면을 손에 잡고 운영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회사의 기본 방침을 제정하고 경영방향을 선택하며 기업의 세계적인 발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이런 전략형인재는 6가지의 표준이 구비되어야 한다

① 공동신념과 가치관표준, ② 충성과 희생정신의 표준, ③ 독자적인 일처리와 지휘능력, ④ 팀을 만들고 조직에 대한 관리능력, ⑤ 다수를 단결하여 하나로 일치하는 공동체 조직능력, ⑥ 부단히 새것을 배우려는 학습능력 등등.

전략형인재는 보통의 경우 초빙을 통하여 채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초빙한 인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자체 배양을 통하여 얻어진다.

외국 기술의 도입과 자력갱생의 관계에서 자력갱생은 여전히 주류이며 인재는 여전히 자체로 배양하여야 하는 것이다.

## 나. 포장교육에 대한 투입을 증가하여 포장인재를 신속히 배양해야한다.

대폭적으로 또 우선하여 포장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은 포장인재의 신속한 배양을 실현하여 포장기업들의 인재의 절박한 수요를 해결하며 포장산업의 인적자원이 지적자원으로 전환하는데 유리하며 포장산업 인적자원의 전체적인 소질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포장전문기술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포장산업의 전문기술인원이 직공인수의 상당한 퍼센트에 도달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반드시 4년제 대학에 포장학과를 건설하여야 하며 이미 설립된 전문대학의 포장학과의 발전을 도모하여 매년 본 포장업종을 위하여 대량의 4년제 및 전문대학의 졸업생을 배출하여야 한다. 동시에 또한 노력하여 공업고등학교에서 포장전문학교를 꾸려 기업들의 중등수준 인재배양에 대한 요구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1) 4년제 대학에 포장학과의 설립이 절실하다.

가) 포장산업의 발전은 상응한 이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포장교육은 절실히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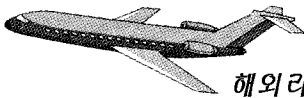
한국의 포장산업은 전체 산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막대해지고 있다. 따라서 포장산업 발전은 이에 상응한 포장학이론이 확립되어야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포장공학의 대학원생과 고급인재들을 길러내어 이 분야를 개척하여 새로운 과학교육으로 포장산업을 발전해야한다는 전략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할 것을 필요로 한다.

나) 포장공학은 새롭고 독립적인 공학기술이고 포장이 상품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이 학문분야의 발전이 시급히 요망된다. 지난 수 십년동안 한국의 상품유통영역에서 포장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 앞에서 포장분야의 고급인재 양성이 새로 발전된 포장학과 이론체계를 발전시키는데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한국이 앞으로 자체적으로 많은 포장이론과 이 중대한 과제를 해결할 전문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생을 배양할 수 없다면 포장산업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뒤떨어질 것은 물론 세계포장의 선진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포장 공정상에서 독특한 포장학 이론은 어떤 다른 학과와 전공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포장영역의 전문가, 학자 등 고급인재들이 연구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다) 과학기술분야로서 포장공학분야에 포장인재를 배양하는 것은 세계와 궤도를 맞추는 것이다.

세계 선진국들의 포장전문교육은 20년대에 벌써 형성되어서 1952년에 이르러서는 미국 미시간주립대학에 포장학원을 설립함으로써 포장의 대학교육을 시작하였다. 경제의 발전에 따라 학사, 석사, 박사 등의 교육체제를 형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타 전공에서도 필수 또는 선택의 형식으로 포장과목을 설치하였다. 국가간의 포장교육, 포장학술교류도 상당한 규모를 이루었다.

세계포장기구(WPO)가 1968년에 성립 되었는데 오늘까지 17차의 세계포장대회가 소집되었고 또한 학술교류는 그 이상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포장교육은 상당히 뒤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은 4년제 및 포장공학 석사과정까지 가지고 있는 중국보다도 훨씬 뒤떨어지고 있다.



2) 교육투자를 늘린다.

일본 기업가들은 교육이 없으면 기업도 있을 수 없다고 인정한다. 그들은 기업의 전체적인 교육과 전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제일류기업을 실현하는 주요한 과정으로 간주한다. 포장기업들은 교육투자는 인재자원이라는 관념을 수립하고 교육은 인재의 생산과 재생산의 생산성 산업의 개념이고 포장교육을 전략산업으로 중요시해야 한다.

한 면으로는 국가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부분을 확대하여야 한다.

다른 한 면으로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하여 전 사회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격려하며 포장기업과 대학의 관련학과들이 연합하여 4년제 대학을 세우고 기존에 세워진 전문대학의 포장교육에 대한 자금투입을 증가하여 포장교육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산업과 학교가 서로 연합하여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하면 학교의 과학연구가 산업체와 이타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대학들도 그 과학 연구가 기업 발전의 실제와 긴밀히 결부되어 그 성과가 실제 생산에 사용되어 포장기업들의 과학기술성과에 대한 수요를 해결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성과가 하루 빨리 생산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촉진하여 줄 수 있다.

3) 포장업종의 인원들에 대한 기술훈련과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포장고등교육을 통하여 배양한 인재들의 신기술개발과, 관리능력의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은 언급하지 않아도 매우 크다. 그러나 현재 대학수준의 포장교육이 부족한 실정에서 보통교육을 통하여 발생한 광범한 이익은 아주 빠르고 직접적으로 경제와 연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재직훈련을 통하여 포장기업에서 현재의 과학기술인재와 관리인재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현대화 과학기술의 고속도의 발전과 복잡다변한 시장환경이 과학, 문화지식을 부단히 갱신할 것에 관한 수요에 적응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현재의 전문기술수준과 관리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다.

### 4. 중국포장산업에서의 인재개발

총체적으로 중국포장산업체 사람들이 중국의 포장산업을 보는 눈을 보면 중국의 포장산업의 기업들의 규모는 작고, 소질이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상당한 부분의 기업 생산경영관리가 낙후됐다; 제품의 품종이 적으며 품질이 많이 뒤떨어있다; 자원의 종합적인 이용정도가 낮다; 포장기업의 기술선택, 소화, 흡수와 과학기술능력이 박약하고 설비를 도입하고 부품들의 국산화과정이 매우 더디다; 경제, 과학기술정보가 순조롭지 않으며 포장업종은 한 면으로 과학기술 성과가 부족하고 다른 한 면으로는 일부 과학기술성과가 적시에 생산에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문제들을 결국에는 인재문제로서 기업의 인재자원개발의 문제로 보고 있다. 포

장업종의 과학기술인재가 부족하고 직공들의 소질이 높지 못하며 인적자원의 개발이 느린 등등은 기업 경제효익성의 저하를 초래하고 발전에 활력이 결핍하며 뒷받침이 없게 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포장업종의 전업기술인원은 단지 직공총수의 2% 내외 밖에 안되며 전국 공업의 6.8%의 평균 수준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9.5 기간 중국의 포장공업의 생산치는 1844억원 ~ 1930억원(인민폐)을 완성하며 년증가율은 10% ~ 11%로 계획하고 있다.

2000년에 이르면 포장공업의 생산치는 4천4백억원에 도달할 것이며 연증가율은 9%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의 포장산업은 고기술, 신소재, 고품질, 대량화, 전문화, 규격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포장기업들의 발전 현황은 중국에서 요구하는 포장공업에 대한 전체적인 발전의 요구 및 세계포장공업의 선진수준과는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며 동시에 기술의 갱신속도가 부단히 가속화 되면 이런 차이는 날로 더욱 큰 발전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리하여 중국 포장업종의 2010년까지의 기본임무와 발전목표를 실현하려면 기술진보를 동력으로 하지 않고 인재 개발을 꾀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오직 사람들의 소질이 제고되어야만 기타의 소질의 제고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인재개발을 틀어쥐어야만 포장기업의 전체적인 소질과 경제효익을 높일 수 있고, 더욱더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거하여 技術革新을 통하여 부단히 시장에 합당한 고품질의 새로운 제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그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으며, 격렬한 시장경쟁에서 기업의 활력과 발전의 後筋을 증강하여 포장기업으로 하여금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포장분야의 인재개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 5. 결론

중국 산업체가 포장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포장교육에 대한 열정을 보이면서 이에 따라 나타나는 중국교육현황을 보면 포장공학을 제대로 전공한 한사람으로서 조국의 포장교육 수준을 볼 때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21세기를 준비하는 대국으로서의 중국이 새로 오는 세기에 산업으로써의 포장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백년대계인 포장 교육에 정부, 포장 산업체, 대학이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의 선견지명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아직도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학사학위를 주는 포장학과가 있는 4년제 대학이 하나도 없으니 심히 안타까운 마음이다.

새천년을 시작하면서 한국에도 조속히 4년제 대학에 포장학과가 설립되어 포장전문인력을 배출하고 향후 한국이 21세기 태평양시대에 주역의 자리를 굳히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